



임요환, 일반인과 대결

서울대서 2,500여명 경기 참가

‘제1회 서울 e스포츠 페스티벌’이 지난 12월 18일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21세기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은 e스포츠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행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e스포츠의 꽃인 스타크래프트, 속타 등 총 4개의 게임으로 진행됐으며, 2,500여명의 경기 참가자와 3,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해 성황리에 이뤄졌다.

글_권경희 기자 · 사진_이혜성 기자

지성의 요람 서울대에서 e스포츠 축제가 열렸다. 서울디지털대학은 시민·학생 등이 참가한 제1회 서울 e스포츠 페스티벌을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서울지부 주관으로 지난 12월 18일에 서울대 종합체육관에서 오전 9시부터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가 외부행사에 문호를 개방한 것은 흔치 않은 일로 특히 게임대회 형식의 e스포츠 행사를 학내에 유치한 점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당초 서울대학교에서 18~19일 이틀간 대규모로 펼쳐질 예정이었던 이번 대회는 일정이 대폭 축소돼 진행됐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서울디지털대학교측은 17일 “일정을 18일 하루로 마감할 계획”이라며 “대회에 참가하고자 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프로젝트인 KTF 매직엔스도 일정이 겹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대회에서는 임요환과 한빛소프트의 박경락 선수, 최연성이 속해 있는 프로젝트인 SK텔레콤 T1이 일반인과 함께 ‘스타크래프트’ 대결에 나섰다.

서울디지털대학교측은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고, 이벤트 대행사가 갑자기 빠지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축소하게 됐다”고 밝히며 첫 e스포츠 대회 주최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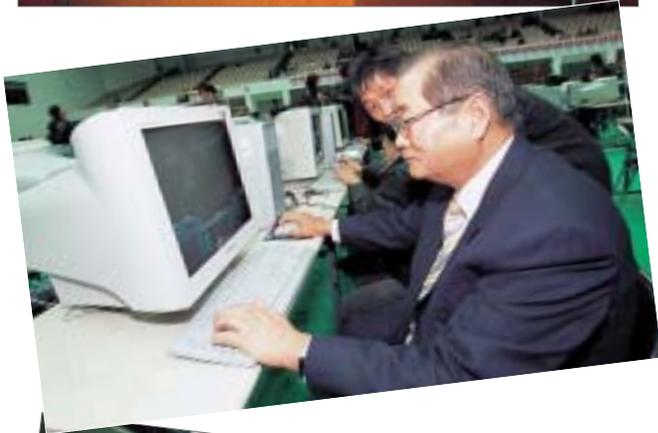
이 대회에는 일반시민 등 6,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참가인원도 2,500여명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총 상금 4,170만원을 걸고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본선 오프라인 대회가 치러졌다.

한편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오전 9시반에 시작된 이날 행사는 노재봉 대회조직위원장, 황기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서울디지털대 정동배 멀티미디어학부장과 함께 발대식을 거쳐 대회가 속개됐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축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2,500여명의 일반 게이머들이 열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SKT T1선수들이 참여 일반인들과 함께 팀플 대회와 사인회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의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노재봉 총재가 그 자리에서 게임을 배우며 특별전에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대회 종목은 스타크래프트 개인전과 팀플전, 스페셜포스를 주종목으로 치뤄졌다. 그외 정보검색부문과 속타 대회도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끝난 대회는 스페셜포스로, 박찬욱(18)군이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300만원 및 부상을 받았다. 관심의 종목이었던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은 박제현(18)군이 차지했고, 준우승 신정훈, 3등 김민석, 4등 백지원, 5등 임기홍군이 차지했다. 팀플전



에서는 고주현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2위 윤정훈, 3위 이노근, 4위 황규정팀이 각각 차지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각 부문별 선수자격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특히 대회 관계자는 “일부 선수들이 서울거주민에 대한 오해가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참가한 선수가 서울거주민임을 확인해야 해당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참가한 한 선수는 “대회 전에 미리 확인을 하지 않아 지방에 사는 선수들이 상당수 참가하거나 좋은 성적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재봉 대회조직위원장은 “이번에는 아무래도 처음 개최하는 대회여서 운영상에 미숙함이 나타났지만 내년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이 행사가 프로게이머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거듭날 것”이라며 “미래 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젊고 건강한 문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밝혔다. ☺

interview

e스포츠 페스티벌 SF 부문 우승자 박찬욱



1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e스포츠 페스티벌 스페셜포스(이하 sf) 부문 우승은 박찬욱(18,Review길드)군이 차지했다. 박찬욱군은 현재 MBC게임 스페셜포스 8강에 진출해 있을 정도로 실력있는 프로게이머 지망생이다. 인천해양과학고 2학년 재학중인 박군의 장래 희망은 단연 프로게이머로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것. 이번 대회 우승을 계기로 자신의 꿈에 한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다음은 박찬욱군의 일문일답.

우선 우승한 소감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일단 기쁘다. 같은 길드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특히 김찬수(아이디 전설)의 도움이 컸다. 다들 힘들게 연습했는데 운이 따랐던 것 같다.

연습은 어떻게 하나, 어려움은 없었나

거의 PC방에서 하느라 PC방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점이 힘들다.(웃음) 부모님들도 특별히 게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다.

앞으로의 각오나 희망은

MBC게임 스페셜포스 8강이 모레 있다. 여기에서 우승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는 것이 꿈이다.연습은 어떻게 하나, 어려움은 없었나 거의 PC방에서 하느라 PC방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점이 힘들다.(웃음) 부모님들도 특별히 게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다.

FPS 장르 가운데 특별히 스페셜포스만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여타 게임들에 비해 타격감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우승상금은 어디에 쓸 것인가

길드원들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다.

앞으로의 각오나 희망은

MBC게임 스페셜포스 8강이 모레 있다. 여기에서 우승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는 것이 꿈이다.